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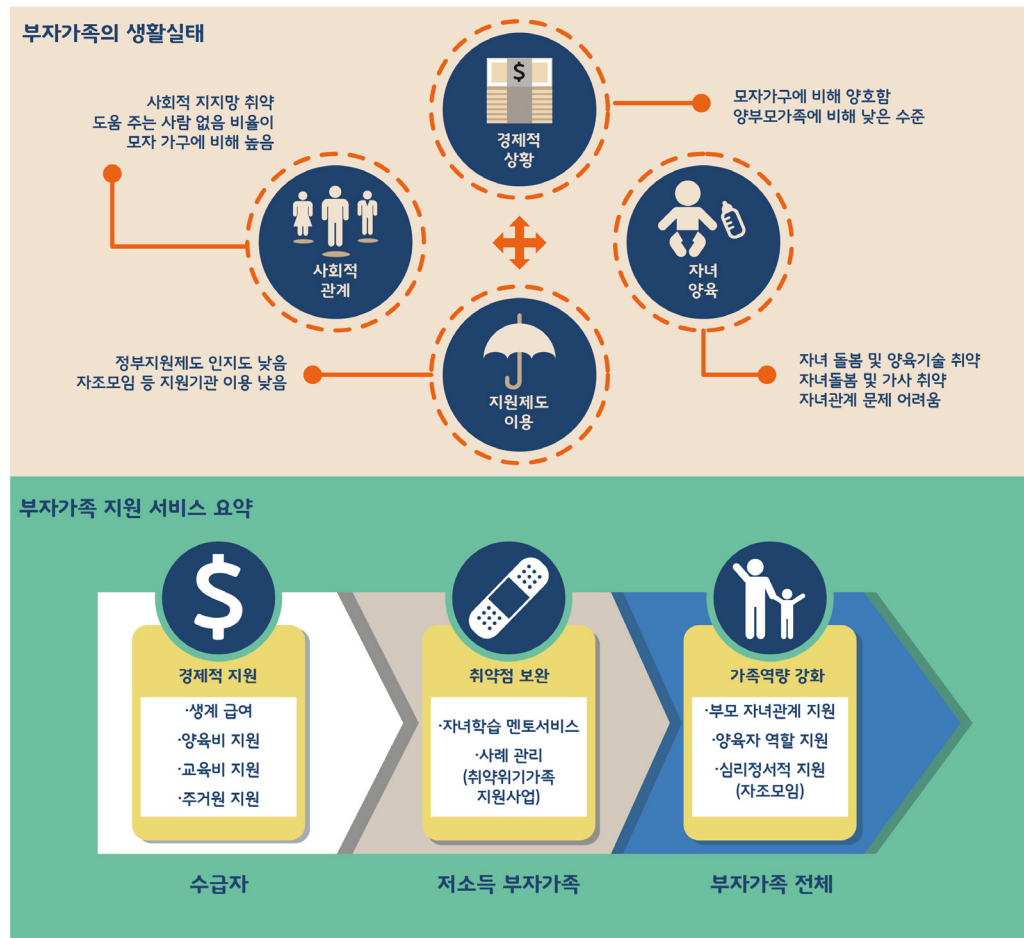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부자가족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김영란 연구위원 (Tel:02-3156-7147 / e-mail:younglan@kwidmail.re.kr)

부자가족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본 연구는 부자가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사업과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의 틀 안에서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안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부자가족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은 높은 모자가족의 비중을 반영하여 주로 모자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에 대응하는 정책과 지원서비스가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부자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양육 등에 있어서도 부자가족이 모자가족에 비해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부자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및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자가족을 위한 별도의 생활시설 설치 등 부자가족 관련 지원정책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을 뿐 부자가족을 고려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으로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이외에 부자가족에게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과 부자가족으로서 경험하는 가족지원수요를 파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사업과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배경 및 문제점

♡ 기존의 한부모가족 관련 연구는 높은 모자가족의 비중을 반영하여 주로 모자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부자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 등에 있어서는 부자가족이 모자가족에 비해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부자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219,997가구)에서 2005년 1.8%(286,923가구), 2010년 2.0%(347,448가구), 2015년 2.8%(537,608가구)로 증가 추세(통계청, 2000, 2005, 2010, 2015, 인구주택총조사).

♡ 특히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부딪친 가장 큰 문제로 모자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부자가족은 자녀양육과 교육을 1순위로 꼽고 있어 차이를 보임(문은영·김보람, 2010:2).

▶ 월평균임금수준과 소득이 가장 낮은 것은 모자단독가구이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모자단독 가구는 양육비용 부담이 큰 반면, 부자단독가구는 돌봄공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황정임 외, 2015:56).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자가족을 위한 별도의 생활시설 설치 등 부자가족 관련 지원정책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을 뿐 부자가족을 고려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한부모가족으로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이외에 부자가족에게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개입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양육자로서 부모역할, 자녀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부자가족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그러나 부자가족을 사업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부자가족은 9.1%(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5:18)로 관련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부자가족은 소수에 불과함. 또한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돌봄, 교육, 상담,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부자가족 참여 실적 또한 미미한 것이 현실임.

2. 부자가족 생활실태

2015년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가족의 생활

❖ (경제적 특성) 부자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며,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역시 낮은 수준을 보임.

▶ 경제적으로 부자가족이 모자가족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양부모가족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경제적 수준을 보임.

▶ 소득구성의 경우 양부모가족은 1순위가 가구대표 본인의 근로소득, 2순위가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부양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있지만, 부자가구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1순위이며, 다음은 사적이전소득이나 공적지원으로 나타나 양부모가족과 달리 소득구성이 불안정함.

❖ (자녀와의 관계)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있어 공통적으로 모든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1순위로 꼽았으나 2순위에서 차이가 나타남.

▶ 부자가족은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자녀와의 “대화단절”을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음.

▶ 또한 부자가족의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 모두 부모-자녀간 관계만족도에서 부정적인 항목(예. 다투거나 화를 낸다, 부모(또는 자녀)를 이해하기 어렵다 등)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다른 가족유형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임.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가구의 생활실태

❖ (소득과 지출) 부자가구는 모자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가구의 비중이 높음.

▶ 소득과 지출, 월평균 가구소득과 생활비 지출은 부자가족이 모자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자산 역시 상대적으로 더 많음. 그러나 자산대비 부채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

❖ (자녀돌봄) 미취학자녀와 초등학교생의 돌봄 유형을 보면 미취학자녀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의 비율이 부자가구, 모자가구 모두 가장 높았음.

- ▶ 조부모 돌봄은 부자+기타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높고, 직접 돌봄은 모자가구가 높았음.
- ▶ 초등학생 자녀 돌봄은 초등돌봄/방과후의 비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며 두 번째로 높은 것은 학원임. 단, 부자+기타가구는 두 번째가 조부모 돌봄임.

♡ (사회적 지지망) 집안일 항목을 제외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구가 모자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낮은 사회적 지지망은 부자가족의 지원정책 인식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원정책 인식도 역시 모자가구에 비해 부자가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지원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도의 이유로는 부자가구가 소득기준상 정책지원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원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정보를 알아보려 하지 않음. 또한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공유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임.

인터뷰를 통해 살펴 본 부자가족의 삶

♡ 부자가족의 남성한부모는 현실적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

- ▶ 홀로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양과 자녀양육자 역할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 경험.
- ▶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사춘기를 경험하는 경우 자녀와의 소통이나 관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낌.

♡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자녀의 공부, 학교성적 등 학습지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현재 방과 후 돌봄기관에서 제공하는 집단적인 학습지원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있음.

♡ 주민센터 등 공공서비스기관에서 한부모가족이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의 내용만 고지 받을 뿐 자녀양육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제공받지 못함.

♡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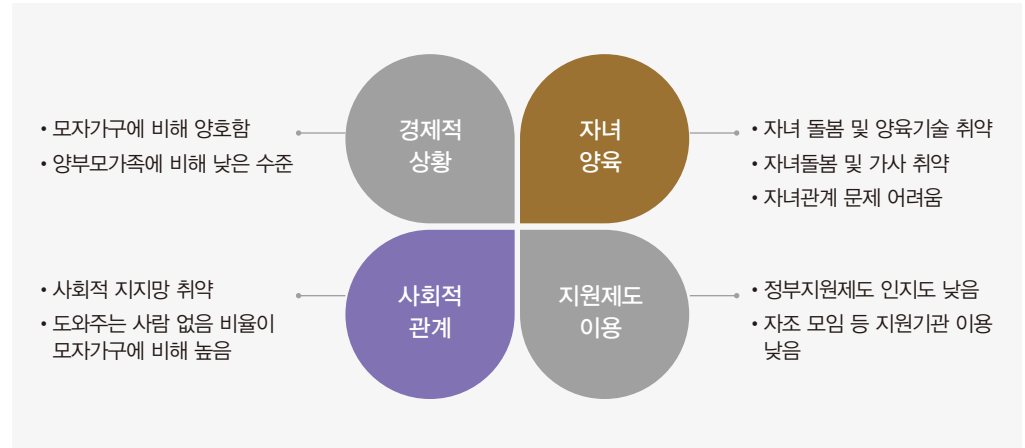
- ▶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간주되어 가르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과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일방적인 프로그램, 부자가족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담 방식 등에 대한 불만임.

♡ 반면 자조모임이나 자녀와의 여행 캠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음.

- ▶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부자가족의 남성한부모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며 어려움을 상담하는 지지체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자조모임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을 제안함.

📍 이상에서 살펴본 부자가족 생활실태를 요약·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음.

[그림 1] 부자가족의 생활실태



3.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부모-자녀관계 상담 지원 활성화

- 📍 부자가족의 대화단절, 청소년 자녀의 부모관계에서 낮은 만족도 등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부모-자녀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상담 활성화 필요
 -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담 대기 시간이 길고 부자가족을 타겟으로 하는 상담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 ▶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프로그램 내 부자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명시화하고 상담 실적을 가족유형별로 집계 하는 등의 방식 도입

멘토서비스 연계

- 📍 부자가족 중 청소년기 이후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학습 관련 지도에 어려움을 경험
 -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봉사단 등을 활용한 학습멘토 연계 서비스를 실시
 - ▶ 건강가정지원센터 학습지도 멘토 봉사단 별도 운영

양육자 역할 지원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 📍 양육자로서 부모역할 지원 활성화
 - ▶ 충분한 돌봄서비스 지원: 부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심야 등 특수 시간대 방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 자녀돌봄 관련한 교육: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사관련 기술(반찬 준비, 빨래, 집안 정리정돈 등)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
 - ▶ 양육자 역할관련 일상적 지원체계 구축: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 할 수 있는 24시간 상담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 창구 등 지원체계 필요

부자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 📍 자조모임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고 단절된 부자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심리정서적으로 위안을 받는 사회적 지지망으로 작동
 - ▶ 정기적 지속 참여 가능한 가족캠프, 체육행사, 체험요리교실 등 다양한 형식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자생적 자조모임 형성 유도
 - ▶ 북카페, 사랑방 등 상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 확보
 - ▶ 자조모임 운영 리더 양성 및 리더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양한 행사 및 정보 공유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업 대상으로 부자가족 명시화

- 📍 2016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방향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임. 그러므로 부자가족 등 한부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사업실적 보고에서 가족유형별로 실적을 취합하도록 변경
 - ▶ 센터 평가 시 부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 가족 이용 비율 등을 지표로 반영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전국 확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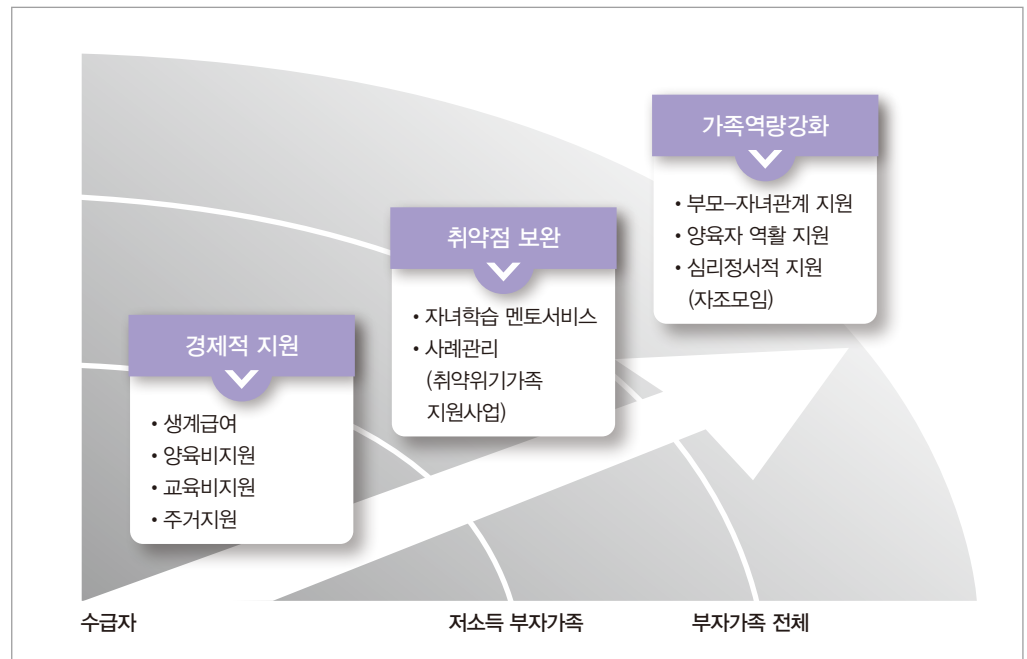
-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은 가족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그러나 2016년 현재 전국 47개소에서만 사업이 운영되어 사업 미 실시 지역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자가족 대상의 지원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로서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지원서비스 및 관련기관 등 정보 접근성 확대

- 📍 지원서비스 및 관련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
 - ▶ 온라인을 통한 정보접근성 확보
 - 온라인 상에서 한부모, 싱글대디, 싱글맘 등 한부모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 ▶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접근성 확보
 - 법원 이혼조정 과정에서 실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안내자료 제공 및 관련 교육 내용 포함
 - 이혼신고 시 방문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지원서비스 및 한부모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지원서비스 기관 정보자료를 비치하여 제공
 - 생계급여 등 지원을 받기위해 1차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센터에서 지원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지역의 지원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 아래 [그림 2]는 이상에서 제안한 부자가족 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부자가족 대상의 지원정책을 소득집단별로 제시한 것임.

[그림 2] 부자가족 지원 서비스 요약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